

2001. 2. 23 (조금)

“전쟁중 强姦은 반인류 범죄”

국제전범재판소 첫 판결

발칸전쟁 범죄를 심판하는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유고전범재판소가 22일 전쟁범죄 재판 사상 처음으로 강간을 반인류 범죄의 하나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전범재판소는 이날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 남동쪽 포차에서 일어난 대규모 전범 행위와 관련, 세르비아계 보스니아인인 드라골류브 쿠나라치(Dragoljub Kunarac), 라도미르 코바치(Radomir Kovac), 조란 부코비치(Zoran Vukovic) 등에게 12~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들 3인은 지난 92년 여름 포차에서 학교, 건설현장 막사 등에 이른바 ‘강간 캠프’를 차려놓고 여성을 집단 강간한 혐의에 대해 이날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국제전범 법정에서 강간 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첫 경우로서

전쟁 발발시 약자인 여성의 피해를 인권 차원에서 조명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辛容寬기자 qq@chosun.com